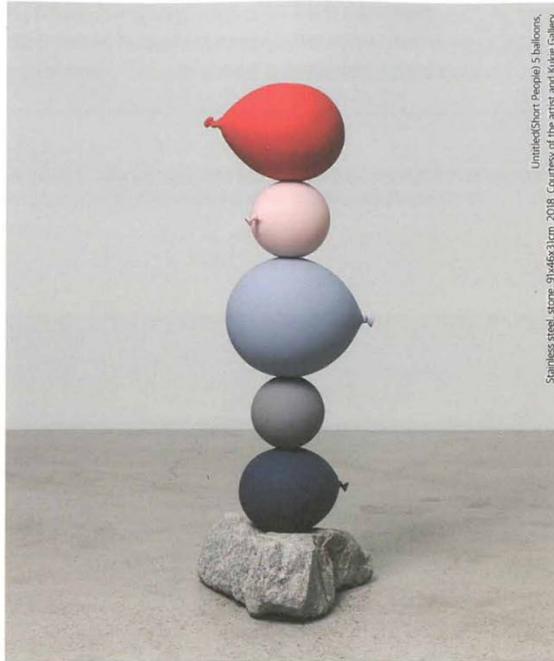


Breath into the Balloons

August, 2020 | 조은숙 에디터

H CURATION



Untitled (Short People) 5 balloons,
Stainless steel, stone, 91x46x31cm, 2018.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lpje Gallery

Breath into the Balloons

풍선은 일견 어린아이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지만, 예술가들은 이를 소재로 형상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이미지와 상징성을 표현한다. 제프 쿤스는 반짝이는 금속 풍선으로 강아지와 토끼 등 대형 조각을 만들어 대량생산되는 대중문화와 예술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나타냈으며, 뱅크시는 빨간 풍선을 날려 보내는 소녀를 그린 벽화 '풍선과 소녀'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홍석 작가는 둥글게 부푼 풍선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조각을 통해 생명과 소망을 은유하고 있다. 현재 국제갤러리 부산 지점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 <작은 사람들(Short People)> 현장에서 만난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가족에게 풍선을 나누어주고 바람을 가득 불어넣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때 하나의 소망을 떠올리며 그 소망을 풍선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그에게 풍선 작품은 개인적으로 보면 숨으로 이뤄진 가족의 초상이며, 숨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행위를 예술의 의미와 연결했다. "예술가

로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나의 개인적 서사와 이어진다. 가족과 작업 동료의 숨을 풍선에 모은 행위는 폐에서 나온 공기의 형태화와 더불어 나의 사적인 의미가 전시장이라는 공적인 장소로 옮겨 왔을 때의 내리티브, 형태적 아름다움을 넘어 기억의 형상화를 의미한다."

각기 다른 양의 숨을 불어넣은 풍선은 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이번에 발표한 풍선 연작에는 하단에 돌을 놓아 작품을 한걸 구상적으로 완성했다. 일부러 석재를 구입하고 의도해 매치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시골집에서 골라 온 돌을 사용한 것이라고. 풍선 조각과 함께 선보인 6점의 평면 작품 '인간질서' 연작은 전통적 미술 재료인 캔버스에 공업용 은색 페인트를 분무한 작품. 기존의 사회적 믿음에 근거한 '완성'의 상태가 반드시 진정한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시적 '미완'이 곧 '완성'이 될 수 있음을 의도했다. H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8월 16일까지.